양고기일일시장뉴스 (2026.10.23)

(주)로드프리미엄 | 대상: 호주 / 뉴질랜드

오늘의 핵심

1. 비 소식에 재입식 수요가 살아나 호주 재입식 양 지표는 10/16 1,195¢/kg으로 한 주 새 29¢, 경량 양 지표는 1,077¢ (+21¢) 올랐습니다.
2. 10/16 주간 호주 양 출하는 186,153두로 32% 늘어 4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그래도 중량 양 지표는 1,119¢/kg(+1%)으로 올랐고, 머튼 지표는 830¢/kg으로 강보합입니다.
3. 미국 ITC 공청회에서 미국 양 업계는 최대 6~8년의 수입 제한(세이프가드)을 요구하며 현재 21%인 자국산 점유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뉴질랜드는 피해를 부인했고, 피해 판정은 11/13까지 나옵니다.
4. 뉴질랜드 양 스케줄(17.5kg YX)은 10/12 기준 북섬 NZ$209, 남섬 NZ$206으로 보합이며, 1년 전보다 17% 높습니다.
5. 10/20 NSW 포브스 경매는 양 출하가 24,800두로 6,350두 줄었고, 무역용 양은 1,097~1,222¢/kg, 중량 양은 1,068~1,199¢/kg에 거래됐습니다.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10/22 67.00위안(-0.5%)으로 사흘째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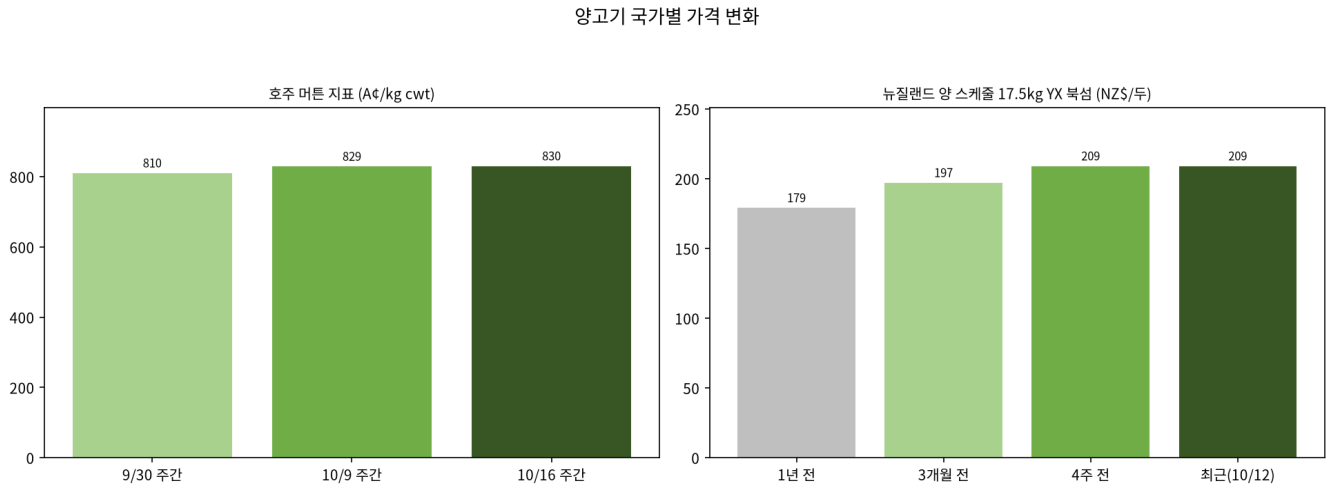
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

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 아래는 산지 경매가, 가공업체 스케줄, 가격지수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호주	무역용 양 지표 NTLI (10/9 주간)	1,153 A¢/kg cwt	전주 +5%	MLA 주간 시황
호주	머튼 지표 (10/16 주간)	830 A¢/kg cwt	강보합 (전주 829)	MLA 주간 시황
호주	중량 양 지표 (10/16 주간)	1,119 A¢/kg cwt	전주 +1%	MLA 주간 시황
호주	재입식 양 지표 (10/16)	1,195 A¢/kg cwt	전주 +29¢	Mecardo
호주	경량 양 지표 (10/16)	1,077 A¢/kg cwt	전주 +21¢	Mecardo
호주	포브스 무역용 / 중량 양 평균 (10/20)	1,097~1,222 / 1,068~1,199 A¢/kg cwt	양 출하 24,800두 (-6,350)	Agora(포브스)
호주	포브스 머튼(메리노 암양 18~24kg) (10/20)	913 A¢/kg cwt	강세	Agora(포브스)
호주	벤디고 도축용 양 주요 등급 (10/19)	1,120~1,180 A¢/kg cwt	강보합, 양 19,624두 (+774)	Agora(벤디고)
호주	전국 양 출하 (10/16 주간)	186,153두	+32%, 4월 이후 최대	MLA 주간 시황
호주	NTLI (9/30 주간, ABARES)	1,088 A¢/kg cwt	전년 -8%	ABARES
호주	발라랏 양 평균 (10/9 주간)	1,226 A¢/kg cwt	-	MLA 주간 시황
호주	AuctionsPlus 재입식 양 지표 ARLI (10/7 주간)	1,329 A¢/kg cwt	-10¢	AuctionsPlus
뉴질랜드	양 도체가 상단 (10월 셋째 주)	최고 NZ$12.20/kg CW	소 도체가 약 NZ$10/kg	NZ Herald
뉴질랜드	양 스케줄 17.5kg YX 북섬 (10/12)	NZ$209/두	4주 전 209, 1년 전 179	interest.co.nz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뉴질랜드	양 스케줄 17.5kg YX 남섬 (10/12)	NZ$206/두	4주 전 205, 1년 전 176	interest.co.nz
호주	와가 20~24kg / 24~26kg 무역용 양 평균 (10/15)	1,192 / 1,189 A¢/kg cwt	두당 +5~7달러	Agora(와가)
호주	와가 30kg 이상 대형 양 평균 (10/15)	1,082 A¢/kg cwt	소폭 강세, 두당 A$345~405	Agora(와가)
호주	호샵 중량·대형 무역용 양 평균 (10/14)	1,185 / 1,180 A¢/kg cwt	두당 +5~20달러	Agora(호샵)
호주	호샵 수출 등급 양 평균 (10/14)	1,150 A¢/kg cwt	두당 A$318~347	Agora(호샵)
호주	야스 24~26kg 무역용 양 (10/14)	1,120~1,150 A¢/kg cwt	두당 +6달러	Agora(SELX 야스)
호주	야스 가공용 머튼 (10/14)	800~900 A¢/kg cwt	두당 +8~10달러	Agora(SELX 야스)
호주	벤디고 무역·중량 양 (10/12)	1,100~1,180 A¢/kg cwt	전체 평균 두당 A$267(+5)	Agora(벤디고)
호주	JBS 남호주 신규 시즌 양 구매가 (서호주산)	A$11.20/kg HSCW	-	Agora Marketplace
호주	양 가격 (MLA, 10/10)	11.53 AUD/kg	0.0%	agri.markets(MLA)
중국	양고기 도매 평균 (10/22)	67.00 CNY/kg	전일 -0.5%	농업농촌부
중국	양고기 도매 주간 평균 (10/9~15)	67.11 CNY/kg	전주 -1.0%, 전년 +8.1%	Foodmate(농업농촌부 주간)
뉴질랜드	대미 양고기 관세 (현행)	13.2%	인상 여부 ITC 심사 중	Farmers Weekly NZ
뉴질랜드	Westpac 양고기 가격지수 (10/7)	686	12월 681 전망	Westpac Agri Bites

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



자료: ABARES, MLA 주간 시황, MLA 주간 시황(10/9), interest.co.nz

국가별 주요 뉴스

호주

1. Agora에 따르면 10/20 양 시장은 NSW·남호주·태즈메이니아·서호주에서 수요가 강해 대체로 올랐고, 10/21에도 퀸즐랜드·NSW·빅토리아에서 품질 개선과 매수 경쟁으로 램·머튼 가격이 올랐습니다. Agora Livestock
2. 10/20 포브스 경매는 양 출하가 24,800두(-6,350)로 줄었고, 신규 시즌 양은 두당 5~8달러 올랐습니다. 무역용 양은 1,097~1,222¢/kg, 중량 양은 1,068~1,199¢/kg, 수출용 양은 두당 A$320~388였고, 머튼도 다시 강세였습니다. Agora(포브스)
3. Agora Livestock의 10/19 양 시장 요약에 따르면 NSW는 출하가 줄고 매수 경쟁이 강해 램·머튼 가격이 올랐고, 빅토리아 벤디고는 공급 상황이 엇갈렸습니다. Agora Livestock
4. 미국 양 업계는 10/16 ITC 공청회에서 최대 6~8년의 세이프가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21%인 미국산 점유율을 30~40%대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호주·뉴질랜드산은 미국 양고기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며, 호주 대표단은 미국 가공업체도 수요를 맞추려면 수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Farmonline, Sheep Central)
5. 10/19 벤디고 양 경매는 총 26,554두(-496)였고, 양은 19,624두로 774두 늘었습니다. 도축용 양 주요 등급은 1,120~1,180¢/kg으로 강보합이었고, 18~20kg 교잡종은 1,145¢(+20¢), 재입식용은 1,250¢이었습니다. Agora(벤디고)
6. 그렉 모리아티 주미 호주대사는 10/16 ITC 공청회에서 미국 양 산업의 쇠퇴는 가뭄·양모 수요 감소·보조금 폐지 때문이며 수입은 공급 공백을 메웠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ITC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소비 양고기의 약 80%를 수입하고, 응답한 미국 생산자 49곳 중 31곳은 수입 피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16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양고기 관세·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SMH
7. Mecardo에 따르면 NSW 최대 100mm 등 주요 산지에 비가 내리며 재입식·비육업체 매수가 늘어, 재입식 양 지표는 1,195¢/kg(+29¢), 경량 양은 1,077¢(+21¢)로 올랐습니다. 무역용 양은 1,154¢로 보합, 메리노 양은 1,061¢(-7¢)입니다. 중국·유럽·영국 수요는 강하지만 미국 수요는 물가 부담으로 약합니다. Mecardo
8. 10/16 주간 전국 양 출하는 186,153두(+32%)로 4월 이후 가장 많았고, 성양 출하도 69,243두(+16%)로 늘었습니다. 출하가 크게 늘었는데도 중량 양 지표는 1,119¢/kg(+1%), 머튼 지표는 830¢/kg로 버텼고 재입식 양 지표도 2.5% 올랐습니다. MLA 주간 시황
9. 10/15 와가는 양 38,600두(+3,600)가 출하됐습니다. 20~24kg 무역용 양은 두당 5~7달러 올라 평균 1,192¢/kg, 24~26kg은 1,189¢/kg이었고 대형 수출용 양도 보합~두당 7달러 강세였습니다. Agora(와가)

뉴질랜드

1. 뉴질랜드 양 도체가는 최고 NZ$12.20/kg, 소는 NZ$10/kg 안팎으로 강세이며, 목초 생육이 좋아지며 농가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NZ Herald
2. 미국 양고기위원회(American Lamb Board)는 수입 양고기 점유율이 커지자 품질·효율 개선 연구에 체크오프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호주산과의 경쟁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RFD-TV
3. ITC 공청회에서 미국 농가·가공업체들이 잇따라 나와 뉴질랜드산 수입이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Farmers Weekly NZ
4. 호주·뉴질랜드 대사는 ITC에 양국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시장을 키우고 미국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Inside U.S. Trade
5. B+LNZ의 케이트 애클랜드 의장이 미국의 수입 양고기 공청회에 나가, 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NZ Herald
6. 호주·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 규제를 지지하는 서한에 미국 하원의원 68명이 서명했습니다. 작년 조사 요청 서한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Greenstone Meats는 워싱턴 로비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Farmers Weekly NZ)
7. 뉴질랜드육류산업협회(MIA)는 워싱턴 ITC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경제학자를 고용하는 등 관세 인상 반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Farmers Weekly NZ)
8. ITC가 피해를 인정하면 12월 1일까지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고,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뒤 60일 안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Farmers Weekly NZ)
9. 미국 양 산업은 미국 내 소비에서 국산 비중이 30%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Farmers Weekly NZ)

참고: 경쟁 공급국

1. 우루과이의 1~9월 양고기 수출은 약 650만 kg으로 18% 줄었습니다(우루과이 양모청). (World Beef Report)

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

- 미국 업계가 최대 8년의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어, 관세나 쿼터가 확정되면 호주·뉴질랜드산 물량이 아시아로 돌며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미국 생산자 다수(49곳 중 31곳)가 수입 피해가 없다고 답한 점은 호주·뉴질랜드에 유리한 근거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관세 인상 판정(11/13 전후)이 4분기 최대 변수이고, 미국 의회의 압박까지 커져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호주·뉴질랜드산 대미 물량이 아시아로 돌아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 대량 계약은 판정 뒤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물량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호주산: 신규 시즌 양 출하가 늘기 시작했지만 가공업체 경쟁이 강해 동부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NSW 등 동부는 강세이지만 서호주는 출하가 많아 약세여서, 서호주산 물량 위주로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주간 평균이 전년보다 8% 높아, 중국 수요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 뉴질랜드산: 스케줄이 전년 대비 17% 높고 수출가격도 최고 수준이라, 관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세 오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 줄 요약

호주 동부 양값은 출하 감소와 매수 경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뉴질랜드 도체가도 높아 산지발 원가 부담이 크므로, 미국 세이프가드 판정(11/13) 전후 물량 흐름을 지켜보며 계약 시기를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